

괴물 『리바이어던』과 전환시대의 공론정치

채진원
경희대학교

◆ 논문 요약 ◆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홉스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리바이어던을 흔히 성경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괴물이고 이는 절대 권력과 권위를 가진 절대군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홉스의 생각은 이와 정반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히려 그런 괴물의 이미지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 현실의 지배자인 왕과 귀족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당시 민중의 열망처럼, 새로운 민주적인 국가, 즉 명실상부한 국민주권 국가의 이미지가 홉스가 꿈꾸었던 리바이어던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본래의 뜻과는 달리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해를 받아왔던 것일까? 또 그렇다면, 1987년 민주화운동이후 우리사회에서 독재정권이 물러가고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는 요즘, 리바이어던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쩌면 "사람은 사람에 대해 이리"이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홉스의 말이, 민주화이후 우리시대의 갈등과 정쟁의 고통을

집약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우리시대의 과제인 갈등과 정쟁을 치료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리바이어던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할까?를 탐색해보는 것이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대한 평가가 그의 생존시는 물론, 사후 오랫동안 호의적이지 못하다가 오늘날에 와서야 재검토되는 이유는 그가 살았던 격변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질적으로 다르긴 하더라도, 이념간의 대립, 계급간의 대립, 이익간의 대립, 세대간의 대립, 지역간의 대립을 넘어서 사회통합을 이루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지닌 시민들이 공론장에 참여하여 말과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여 국민통합이라는 리바이어던을 창출하고 싶은 강력한 열망 때문일 것이다.

※ 주제어: 리바이어던, 공론정치, 공화주의, 한나 아렌트, 국민통합

I. 괴물에 대한 많은 오해

2006년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괴물>이라는 영화를 만들어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마스 홉스(Hobbes, Thomas,

1588~1679)는 자신의 근대 민주주의적 국민주권사상을 집약한 책제목으로 《구약성서》〈욥기〉에 나오는 거대한 환상의 괴물인 『리바이어던 Leviathan』(1651)을 사용하여, 자신의 진보적 사상과는 무관하게 당시대에서 뿐만 아니라 이후 현재까지 손해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어서 '자연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제한할 수 없고, 개인의 힘만이 권리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끝까지 추구하는 자연상태에서는 '만인(萬人)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있고, '사람은 사람에 대하여 이리(狼)'이기 때문에 자기 보존(自己保存)의 보증마저 없다. 그러므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은 계약으로써 국가를 만들어 '자연권(自然權)'을 제한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의지에 그것을 양도하여 복종한다는 홉스의 생각은 소위 성약설에 근거한 사회계약론으로, 전제군주제나 독재 그리고 국가에 대한 개인의 복종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한 것으로 오해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그런 오해가 일반적이다. 가령 인터넷 포털 naver에 홉스를 검색해보아도 "홉스는 《리바이어던 Leviathan》(1651)에서 전제군주제(專制君主制)를 이상적인 국가형태라고 생각하였다"¹⁾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영화 〈괴물〉이 한창 상영 중 일 때 한국일보 모 기자는 '누가 괴물인가'라는 칼럼에서 "정부가 괴물이란 착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란 말로 유명한 17세기 영국의 정치사상가 토마스 홉스는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국가를 괴물에 비유했다"라고 하면서, 괴물에게 잡혀간 딸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신고한 가족을 감금시키는 무책임한 '정부'를 진짜 괴물로 평하고 있듯이, 리바이어던을 부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있다.

아울러 연세대에서 낸 〈연세필독도서〉에서는 "국가에 대한 개인의 절대적 복종을 강조한 홉스는 전제군주제를 이상으로 여기고 있는 만큼, 사회질서의 주창자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독재정권의 옹호자라는 비판을 동시에 받기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박홍규 2006).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홉스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리바이어던을 흔히 성경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진 괴물이고 이는 절대권력과 권위를 가진 절대군주를 지칭하는 것으로 묘사한다. 그러나 홉스의 생각은 이와 정반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히려 그런 괴물의 이미지가 아니라 절대적인 신, 현실의 지배자인 왕과 귀족의 속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당시 민중의 열망처럼, 새로운 민주적인 국가, 즉 명실상부한 국민주권 국가의 이미지가 홉스가 꿈꾸었던 리바이어던이다.

굳이 홉스가 추구한 대로 리바이어던을 무시무시한 괴물로 표현하고 싶다면,

1) naver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171960>, 검색일: 2008.4.5)

1985년 당시 북한에 납북되어 있던 신상옥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알려진 북한영화 ‘불가사리’ 괴수에 가깝다. 왜냐하면, ‘불가사리’는 고려 말을 배경으로 쇠를 먹는 괴수 불가사리의 이야기로, 도탄에 빠진 민중에게 무기 만들기를 강요하는 조정의 폭정에 맞서 불가사리가 결국 민중의 선두에 서서 조정의 군대와 맞서 싸우는 괴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흠스의 리바이어던이 본래의 뜻과는 달리 부정적인 이미지로 오해를 받아왔던 것일까? 일단은 원서나 번역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독자의 탓이거나 그 책에서 제시하는 민주적인 가치를 적극적으로 소개하지 못한 지식인들의 탓도 클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원인은 시대적으로, 리바이어던이 국내에 한글로 소개되는 시점이 대체로 박정희 독재자에 의한 폭력(폭압)적 국가의 시대였다는 점에서, 리바이어던이 우파지식인들에 의해 독재국가의 옹호자로 해석되고, 좌파지식인과 반독재-반국가주의세력에게는 박정희의 ‘폭력국가’와 흠스의 ‘국가에 대한 강조’가 구별되지 못하고 동일한 것으로 오해되었기 때문이다.

하나의 아이러니이지만, 당시에 흠스의 정치사상과 리바이어던을 제대로 읽었던 우파지식인과 좌파지식인이 있었다면, 우파지식인은 리바이어던을 국민들이 읽어서는 안되는 ‘불온한 금서’로 정했을 것이며, 반대로 좌파지식인들은 민주국가를 염원하는 ‘국민의 필독서’로 권장했을 것이다.

어쨌든. 그렇다면, 1987년 민주화운동이후 우리사회에서 독재정권이 물러가고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섰다고 하는 요즘, 리바이어던을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어쩌면 “사람은 사람에 대해 이리”이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는 흠스의 말이, 민주화이후 우리시대의 갈등과 정쟁의 고통을 집약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우리시대의 과제인 갈등과 정쟁을 치료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리바이어던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할까? 를 탐색해보는 것이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Ⅱ. 흠스가 괴물을 책제목으로 뽑은 이유

‘리바이어던’이란 이름의 출처는 다름 아닌 기독교의 성서이다. 성서에서 리바이어던은 여호와의 적이며 혼돈의 원리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또 때로는 악어나 고래의 형상이 부여되고 있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신화적 상상의 소산으로서 추정된다. 서양 문학사에서 많은 저자들이 악과의 연상 하에 리바이어던을 묘사하고 있는 전통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리바이어던이 셰익스피어에서는 힘과 스피드의, 밀턴에선 광대함의, 마블에선 거대한 배의 상징적 표현이기도 하다. 흠스

의 경우, 만일 그가 리바이어던을 악과 연상하여 생각했다면 이 이름을 그의 책 제목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이 이름을 부여한 것에 대해 책의 본문 17장 13절에서 “우리 시민이 평화와 안전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은 불멸의 영원한 신 하나님 아래서 우리를 통치하는 유한한 신, 곧 리바이어던의 분이다.” (진병운 2006, 48-50)고 명기하고 있는 저자 홉스에게는 리바이어던이란 시민의 생명을 지상의 폭력적인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는 국가통치권자로서의 정부를 지시하는 이름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홉스가 통치권자를 리바이어던이라고 명명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인간은 그들의 자연 본성에서 오는 자만과 교만으로 인하여 서로 협력하여 질서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피조물이기에 그들의 순조로운 사회생활을 위해선, 스스로가 본문 28장 27절에서 천명하고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의 온갖 자만과 교만을 압도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진 리바이어던을 불러내어 이를 다시 거만(pride)의 왕이라고 명명했던 것”(진병운 2006, 48-50)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데에 있기도 하다.

Ⅲ. 국가의 존립이유는 개인의 생명을 지키는 것

홉스는 1588년에 태어나 1679년 91세에 죽었다. 그가 살던 절대군주제 국가인 영국에서는 1640년에서 1660년까지 중대한 정치적 격변인 ‘청교도 시민혁명’과 ‘왕정복고’가 일어났다. 20년간의 피의 내전을 동반한 청교도 혁명은 왕과 시민간의 갈등, 왕당파와 의회파간의 갈등, 공회와 청교도의 갈등, 귀족과 부르주아간의 갈등, 부르주아와 민중간의 갈등, 왕권신수설과 국민주권과의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을 폭발시켰고, 마침내 절대왕권적 전제정치를 무너뜨리고 공화정과 입헌적 의회정치를 수립하였다. 바로 그 격변기인 1651년에 『리바이어던』이 나왔고, 그 격변기에 살았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그 격변기를 상처받지 않고 통과하기란 극히 어려웠을 것이다.”(구기서 1993)

그의 격변적인 인생은 1640년 그의 정치학에 대한 처녀작인 『법학강요(The Elements of Law, Nature and Politics)』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국왕과 의회의 대립이 격화되어 내란의 위기가 다가오자 홉스는 『법학강요』를 통해 평화와 안전이라는 국가목적 달성을 위해 절대권을 가진 군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절대왕정의 유력한 정치사상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국왕보다 의회편이 우세해지는 기미를 보이고, 왕당파들이 대역죄로 탄핵을 받게 되자, 그는 『법학강요』에서의 자신의 견해 때문에 신분의 위협을 느끼고 재빨리 파리로 망명했다. 파리 망

명 중에 이미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구상하고 저술하고 있었다. 1651년 런던에서 출판된 『리바이어던』은 『법학강요』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왕당파로부터 불충과 신에 대한 모독이라는 이유로 신랄한 비판을 받았으며, 1660년 왕정복고와 더불어 교회와 왕당파에게 그는 이단자로 몰려 화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홉스는 20년간의 전쟁, 피의숙청, 혼란, 급변하는 변화를 보면서 무엇을 보고 느꼈을까?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했을까? 무엇보다도 격변기속에서 이래저래 의회파와 왕당파 어느 쪽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한 채 망명생활을 한 그는, 그 누구보다도 개인의 생명을 위협받았으며,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생명의 자기보존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바람직한 국가의 상을 모색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격변기적 삶을 살았던 홉스는 청교도 혁명의 결과 발생한 공화정과 의회가 부르주아 이익의 대표기관이고, 의회의 승리도 결국은 왕으로부터 부르주아로의 '권력의 교체'에 불과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국민의 보다 근본적인 정치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리바이어던』을 썼다. 그가 생각한 정치의식의 전환이란 바로 국가란 무엇이며, 국가의 권위와 국가지배의 정당성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해명하는 작업이었다.

즉, 중요한 것은 절대군주제, 공화제 등 국가의 형태가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동의하고 복종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절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홉스가 보기에,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고, 개인이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 국가에 불복종한다는 새로운 관점이었다. 또한 인간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국가의 발생을, 이른바 '사회계약설'로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권력과 법의 지배가 개인 주권의 일부를 국가에 양도하기로 사회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에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홉스의 관점은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권위를 전근대적인 시대에 초월적인 '이데아'나 '신'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 개인간의 사회적 계약과 합의로부터 이끌어내고 있다.

따라서 홉스가 전통적 권위나 신의 이름에 의한 비합리적인 지배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를, 근대적인 시각으로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국민주권으로 설명한 최초의 사상가로 볼 수 있다. 홉스가 보기에, 국가권력은 '폭력'이 아니라 '정당한 권위'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고, 따라서 권력운영은 모든 구성원의 이익과 깊이 관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의 국가론은 근대 민주주의의 국가론의 원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국가의 형성과 국민의 의무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를 어떤 추상적인 이념이나 도덕적 규범으로부터 이끌어내지 않고 현실적인 인간의 본성에 대한 기술과 그 분석을 통해 해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근대적인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홉스의 국가권력론은

절대왕정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권력과 법은 국민들이 양도하기로 사회 계약과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국가권력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하고, 이것에 대해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Ⅳ.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늑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홉스는 사회나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상태, 즉 외부의 규제나 통제가 없는 자연상태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분석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그 의도는 자연상태에서의 필연적 현상인 죽음의 공포를 유난히 부각시킴으로써, 자연상태로부터 탈출해야만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결과로 나타날 국가의 기능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가 타개해야 할 자연상태의 바람직스럽지 못한 조건이나 특징은 무엇인지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상태의 역사적 사실 여부는 거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논리적 가설일 뿐 역사적 설명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공통권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간들이 항상 전략할 가능성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험적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기도 하다.

홉스는 인간을 경쟁, 의심, 권력욕에 따라 작동하는 자동기계로 환원함으로써 덕성의 항목들을 해체하였다. 그 결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인간 본연의 자연상태가 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해체된 결과물을 재합성함으로써 전쟁상태를 종식시키는 “평화의 기계”를 고안하고자 한다. 지배에 대한 정당화 논변은, 국가란 자기보전을 지향하는 합리적인 개인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밖에 없는 필요악이며 국가는 전쟁의 억지를 위하여 모든 종류의 정의와 불의에 대한 해석을 독점해야 한다는 형태로 제출된다. 홉스가 수행한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운동중의 물체라는 존재론과 기하학적 방법에 입각해 있다.

홉스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생각을 부정한다. 그는 모든 사람이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하나의 자연권이였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는 상황을 ‘자연 상태’로 규정했다. 따라서 자연 상태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적대자요, 타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인간들이 아무런 제한도 통제도 없는 자연상태에 있다면, 서로 무한히 자신의 힘(이익)만을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자기보존의 본능’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힘을 많이 가진 사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생각하면 비슷하다). 그래서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인간에 대하여 늑대’이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Thomas Hobbes 1968).

그러나 이런 힘의 추구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길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기보존의 본능’ 자체가 위협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약을 맺어서, 타인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가 전적으로 부정되는 최악의 경우는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자면 이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공동체 성원 중 누구라도 이 계약을 어겨서는 안되며, 필요하다면 강제로라도 이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때 이 강제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이다. 국가는 국민들의 계약 위에 서서 그들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마치 거인이나 괴물(Leviathan)같은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V. 리바이어던의 실체는 ‘폭력’이 아닌 ‘말’

홉스에 따르면 국가 구성 계약(협약)에 의해 개인들의 무한정한 이기심과 투쟁적 본성을 통제할 공통의 힘이 창출되고, 계약(협약)의 체결은 개인들이 자신의 권리들을 완전히 양도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국가조직에 힘을 부여하는 것, 강력한 권력을 지닌, 국가조직을 탄생케 하는 바로 원초적 사회 계약임을 알 수 있다. 즉, 만인이 수락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갖춘 그리고 자연상태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국가권력은 원초적 사회계약 이전부터 선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협약)에 의해 그리고 그 계약(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등장한다.

홉스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협약)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홉스가 사용하는 계약(협약)에 대한 원어는 covenant인데, 이것은 contract로 번역되는 ‘계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협약’·‘약속’·‘합의’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웹스터 유사어 사전』에 의하면, covenant가 “통상적으로 공식적이고 엄정하며 구속력 있는 합의”라고 되어 있다는 점에서, 홉스가 사용하고 있는 계약(협약)의 개념은 계약을 맺는 사적 이해관계자들간의 단순한 타협수준이 아니라 사적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공적질서인 국가의 창설과 이렇게 합의와 협약으로 만들어진 국가에 대해 계약자들의 절대 복종을 말한다(남경희 1993).

따라서 국가의 정당성과 힘은 바로 계약자들 사이에 ‘말’과 ‘행위’로 이루어지는 합의와 협약 그 자체에서 나온다. 국가의 권위와 권력은 국가를 창출할 때 협약의 매체인 ‘말의 힘’에서 왔기 때문에, 국가라는 리바이어던의 실체는 폭력(violence)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의해서 구성되고

정당화된다는 점에서, 하버마스(J. Habermas)의 표현대로 하자면, '공론장'(public sphere) 또는 '의사소통적 권력'(communicative power)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렌트(H. Arendt)의 표현을 빌리면, 폭력(violence)과 권력(power)개념의 분명한 구별일 것이다. 아렌트는 "폭력의 대립물은 결코 비폭력이 아니라 권력"(한나아렌트 1999)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흔히들 "권력이라는 것이 곧 폭력"이라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다. 그가 보기에, 폭력의 대립물은 권력이다. 따라서 폭력과 권력은 다르다. 폭력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목적을 통해서만 정당화 될 수 있는 것이라면, 권력(power)은 폭력(violence)과 다르게 행위(action)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곳에서, 즉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실에서 발생하므로, 권력은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과 행위를 통해 함께 공통감각(common sense)을 형성할 때, 생겨나는 잠재적인 약속의 힘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가 이미 정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권력이 폭력을 사용할 때, 그 권력은 자신의 손에서 빠져나가는 권력을 폭력 수단으로 필사적으로 만회하려는 불가능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폭력을 사용하는 권력은 이미 권력이 아니며,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Ⅶ. 우리시대의 리바이어던: 세계평화와 국민통합의 공론정치

홉스가 '괴물'(리바이어던)이라고 불렀던 근대 국가는 16~18세기 서유럽의 봉건제에서 절대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모습으로 나타났다.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프랑스혁명을 시작으로 전 유럽을 휩쓴 부르주아 시민혁명을 통해 절대주의 국가가 국민국가로 이행하면서, '짐이 곧 국가'라고 까지 했던 군주의 절대 권력이 국민주권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홉스는 『리바이어던』을 통해 낡은 정치적 권위와 권력이 무너져가던 영국에 새로운 권위와 권력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권위와 권력의 공백이 초래하는 부정 부 상태는 많은 이들에게 재난일 뿐이기 때문이다.

홉스는 자신이 살던 시대, 즉 왕과 귀족, 새로 등장한 부르주아 계급 등 사회 세력들 간의 대립 및 종교적 갈등으로 평안한 날들이 없던 시대를 그렇게 표현했다. 그는 국민주권에 의해 형성된 국가의 통치만이 그런 야만적인 상태를 끝맺고 평화

를 가져올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홉스가 『리바이어던』을 통해 꿈꾸었던 주권재민, 생명존중, 평화공존의 세계는 그의 사후 30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도래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근대 세계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미-소 냉전구도하에서 이데올로기적 질서와 반목, 군사적 위협속에서 살아왔다. 소련의 붕괴로 냉전구도가 해체되었지만, 지역분쟁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세계화의 진전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갈등은 커지고 있다.

특히, 동북아시아 한반도의 한국은 냉전, 분단과 전쟁 그리고 오랜 독재정권하에서 국민의 생명과 인권, 평화, 말과 협약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국민주권이 사라진 폭압의 세계에 있었다. 1987년 이후 민주화 진전으로 권위주의정권이 사라지고, 시민사회가 활성화되었다고는 하나, 탈산업화와 탈냉전화및 탈주권화의 급진전으로 과거에 비해 남북갈등, 계급갈등, 계층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정파갈등이 폭발하는 가운데,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이 힘들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이념은 그 어원상 두 가지 목표를 통일시키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하나는 양적인 측면에서, 지배자를 소수에서 절대적 다수로 변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질적인 측면에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지배자가 될 수 없도록 구성원간의 정치적 평등과 공적 자유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모순과 갈등을 줄이거나 폐지하기 위한 대안적 정치체제를 발견하고 공고화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모델에서 전자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liberalism) 또는 다원주의(pluralism)모델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토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또는 현대적 공화민주주의(republicanism)모델일 것이다(주성수·정상호 2006).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과제는 1987년을 경계로 양적인 측면에서 질적인 측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양적인 측면에서 정치의 주체인 주권자가 독재자에서 국민 다수의 지배로 바뀌었으나,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는 어느 누구도 지배자가 될 수 없는 사회상태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이후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및 6월 민주화운동 20주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동안 무심코 지나쳐 왔던 우리 헌법 제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정체성의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화주의(republicanism)는 시민적 미덕(civic virtue)을 구비한 유덕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공공복리의 실현에 공헌하는 체제로 곧 공화국(republica, common-wealth)을 말한다(모리치오 비롤리 2006). 따라서 공화국의 존립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본원리로 대략 ‘시민적 미덕’, ‘경제적 종속으로부터 시민의 자율적 독립’과 ‘부패방지’를 꼽는다. 그 중에서 핵심 정수이

자 기반은 '시민적 미덕'이다. 시민들이 미덕이 있을 때 시민들의 정치참여의 자유가 실현된다는 점에서, 그 미덕은 바로 시민들의 공공적(public)인 적극적 자유(freedom)와 동의어이며, 따라서 그것은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사적(private)인 자유와 권리들의 보호라는 근대적인 '소극적 자유'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밝히고 한국의 민주 정치의 발전논의에 보다 적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화주의내지 공화국 존립의 기반인 정치에 참여하는 유덕한, 또는 정치적 공통감각을 가진 시민이 대한민국의 실제 국민으로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1차적 숙제가 놓여있다.

즉, 대한민국의 공화국 시민들이 경제적 불평등과 계급지배-종속관계로부터 해방되어 공화국의 진정한 주권자인 공적 시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공화국의 정부와 제도정치가 신자유주의적 경제불평등 체제와 정책의 추진을 위한 '도구적 정치'를 포기하고, 정치영역에 침투해오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익정치'를 공적으로 지양하는 '시민적 공론정치'로 새롭게 탈바꿈될 때, 이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 형성되고 동학이 작동할 때 가능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민적 공론정치가 꽃피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자세가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엘리트적 활동방식과 집단행동을 소통적으로 바꿔야 하고, 근대 정치의 개념을 포럼(forum) 등으로 표현되는 공론장 개념으로 창조적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이것은 자신들이 독점했던 정치의 의사결정과정과 '정치적 과정'을 주권자인 정치적 시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개방하고 돌려주는 과정이다.

다시말해서, 정치적 과정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독려함으로써, 신뢰감을 되찾고, 그들이 마음속 깊이 숨겨둔 공동선과 미래에 대한 생각, 시민적 애정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정치적 판단과 소통의 공론장을 활짝 열어 줘야 한다. 엘리트의 목소리가 크면 클수록 집단행동을 하면 할수록 시민들은 주눅을 들게 되어 있다. 더 이상 시민들을 표나 찍는 도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흡스의 『리바이어던』에 대한 평가가 그의 생존시는 물론, 사후 오랫동안 호의적이지 못하다가 오늘날에 와서야 재검토되는 이유는 그가 살았던 격변의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질적으로 다르긴 하더라도, 이념간의 대립, 계급간의 대립, 이익간의 대립, 세대간의 대립, 지역간의 대립을 넘어서 사회통합을 이루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지닌 시민들이 공론장에 참여하여 말과 토론을 통해 합의의 도출하여 국민통합이라는 리바이어던을 창출하고 싶은 강력한 열망 때문일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기서. 1993. "홉스의 정치사상 연구: Leviathan의 국가이론을 중심으로". 『호남정치학회보』 제5집.
- 김기봉. 2003. "국가란 무엇인가: 개념사적인 고찰". 『사양사론』 제82호.
- 남경희. 1993. 『말의 질서와 국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모리치오 비롤리. 2006. 『공화주의』. 김경희·김동규 역. 서울: 인간사랑.
- 박홍규. 2006. "민주주의자 홉스의 <리바이어던>". 『인물과 사상』 1월호. 서울: 인물과 사상사.
- 주성수·정상호 편저. 2006. 『민주주의대 민주주의』. 서울: 아르케.
- 진병운. 2006. "토픽맵에 기초한 철학 고전텍스트들의 체계적 분석 연구와 디지털 철학 지식지도 구축: 리바이어던".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철학사상』 별책 제7권 제13호.
- 한나 아렌트. 1999. 『폭력의 세기』. 김정환 옮김. 서울: 이후.
- Hobbes, Thomas. 1968. *Leviathan*. (ed) by C.B. Macpherson. London: penguin Books.
- naver 백과사전(<http://100.naver.com/100.nhn?docid=171960>. 검색일: 2008.4.5)

‘Leviathan’ and Politics of Public Opinion in Transition Period

Chae, Chin Weon

Generally speaking, Hobbes’s ‘Leviathan’ was described as a bed monarch such as powerful beast. However, There is a misconception. The basic features of his thoughts are absolutism with a tinge of individualism, materialistic rationalism, hedonistic utilitarianism. Hobbes had rejected the idea that the State has originated due to divine will or force. he tried to escape from the monarch and the feudal lord’s order. According to Hobbes, the human nature is a selfish, egoistic mind. so that the state of nature is a very gloomy picture. there is a constant war of all against all in the state of nature actual or potential. To overcome this condition, he created ‘Leviathan’, monster which is basis on the people’s consent. As a result of the social contract sovereign power, the State comes into being to protect the civil right. he supports an absolute sovereign as the only way out for the civil right and peace.

Then, Why Hobbes’s Leviathan was misunderstood and Why we have to rethink Leviathan even though the Korean society had established the democratic regime since 1987. I may say the reason, the Hobbes’s state of nature still exists in Korean society. There are ‘selfish’, ‘quarrelsome’, ‘all against all’. In this reason We may have to rethink Hobbes’s idea to make a peace and order for individual people. That is a very valuable thing.

Hobbes’s Leviathan was devalued till now. Recently, Leviathan is getting to be reconsidered again for overcome the crisis of governability, class struggle, conflict between left and right ideology, regional problems and troublesome of new and old generation. We able to establish “Leviathan” in real sense, If we participate in public debate.

Key words: Leviathan, Politics of Public Opinion, Republicanism, Hannah Arendt, Nation Integration